



2장

그리스도의 완전한 인성과 대제사장 되심

제 2 장

그리스도의 완전한 인성과 대제사장 되심

1장이 그리스도의 신성과 온 인류의 아들로서 얻은 상급(만유의 후사,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으심)을 말하고 있다면 2장은 사람의 운명을 짊어지신 그리스도 곧 그리스도의 인성에 관하여 말하고 있다. 그는 천사보다 잠간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고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인류의 운명을 짊어지셨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시고 아담이 잃어버렸던 존귀와 영광을 회복하셨다. 이처럼 아담의 존귀와 영광(통치권)을 회복하신 것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스도는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셔서 즉 온전케 되심을 배우셔서 형제라 부르는 모든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신다. 그가 어떻게 거룩하게 하셨는가? 그는 인류의 혈통에 함께 속하셔서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일생에 매여 죄와 사단의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셨다. 또한 지금도 대제사장이 되셔서 시험받는 자들이 능히 승리하도록 도와주시는데 그것은 구주께서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맛보셨기 때문이다.

A. 히 2:1~5,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

B. 히 2:6~16, 그리스도의 우리와 같은 인성

C. 히 2:17~18, 시험받는 자들을 도우시는 자비로운 대제사장

A.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2:1~5)

1.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나려갈까 염려하노라”

무관심은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막는 우산이다. 무관심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멸시이다. 무관심은 사랑에 대한 멸시이다. 무관심은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러 온 119 구조대원을 경멸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태도,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새 언약의 진리의 대열에서 흘러 떠나려가고 있었다.

모든 들은 것 - 메시아 시대에 아들로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인류의 만아들로 삼아 세상에 보내신 것, 아들이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신 것, 아들이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므로 모든 인류보다 우월하게 된 것, 구원 얻을 자들이 원수를 발로 밟아 정복할 때까지 대제사장과 왕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어 천사들을 보내어 도움을 주시는 것 등이다.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 1장에서 언급된 내용들은 “큰 구원” (2:3)에 해당 하는 요지들로서 대단히 의미심장한 진술들이었다. 그러므로 앞서 들은 주제들을 ‘더 진지하게 주의하라’ 는 것이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는 많은 수의 유대인들은 “흘러 떠나려 갈” 위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흘러 떠나려가다’ 라는 말은 해양 용어로서, ‘옆으로 흐르다’ , ‘(이탈하여) 떨어지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현대의 많은 사람들 역시 흘러 떠내려 갈 위험 가운데 처해져 있다. 그 이유는

첫째, 시대적인 진리들을 연구하지 않는다.

둘째,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동과 실천에 옮기지 않는다.

배를 타고 갈 때 어떤 노력도 하지 않으면 배는 정로에서 이탈하여 흘러 떠내려가고 만다. 어떤 때는 마치 배가 정지된 상태처럼 착각하지만 흘러서 폭포 아래로 추락하거나 바위에 부딪히고 만다.

2.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천사들로 하신 말씀 -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하여 주신 말씀은 율법을 의미한다. 바울은 “율법은 . . . 천사들로 말미암아 . . . 베푸신 것” (갈 3:19) 이라고 말하고 있다.

견고하게 되어 . . .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 하나님께서 율법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실 때 율법의 거룩함과 공의로움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셨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었다” (출 20:18). 그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모든 율법을 지키겠다고 약속을 하였다. 그러나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들은 불순종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받았다(레 26장).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준행하며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다” (겔 20:12)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들은 광야를 여행하면서 늘 마음이 미혹되어 불순종하고 말았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을 이방인 중에 흠으며 열방 중에 헤치리라” (겔 20:23)고 하셨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공의롭지 못하다고 불평하였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각기 행한 대로 심판

하리라” (겔 33:20)고 경고하셨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경고를 거절하고 회개하지 않았으므로 다시 열국 중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다. 훗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다. “내가 종 선지자들에게 명한 내 말과 내 전례들이 어찌 네 열조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슥 1:6). 우리는 율법에는 공변된 보응이 뒤따른다는 역사적 경험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

3.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오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 큰 구원은 메시아를 통해 주신 구원을 말하는 것이다. 이 ‘등한히 한다’ (헬, 아멜레오)는 말은 ‘관심을 갖지 않다’, ‘무시 하다’, ‘소홀히 하다’ 라는 의미이다. 레위기의 속죄제와 속건제는 “부지 중” (레 4:2, 13, 22, 27; 5:2, 4, 17)에 지은 죄에 대한 각성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자신이 소홀히 여기거나 무지로 지은 모든 죄에 대하여 매일의 제사에서 매일처럼 회개하여야 하였다. 더욱이 대속죄일에는 미처 회개하지 못한 모든 죄들에 관하여 “스스로 괴롭게 하고” (레 16:29) 회개하여야 하였다. 그러므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진리와 삶에 게으르고, 무관심하고, 소홀히 한 모든 것을 돌아보고 회개하여야 한다.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라 -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승천을 본 “오백 여 형제들” (고전 15:6), 심지어 열린 무덤을 보았던 여자들은 사도시대에 주의 증인이 되었고, 그들은 바울과 당대의 사람들에게 증언과 증거들로 확증을 주었다.

4.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의 나눠 주신 것으로써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 - 메시아의 공생애와 초대 교회의 복음의 전파에는 많은 “표적” (행, 세메이온: 증거, 징조, 놀라운 현상)과 “기사” (기적)들이 있었다. 바울은 메시아의 능력 있는 공생애에 관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행 2:22)고 말한다. 이러한 역사들은 오순절 성령 운동을 통해 사도들과, 교사들, 능력 행하는 자들, 방언 행하는 자들 등 교회 안에 세움을 입은 여러 계층의 사람들에게도 나타났다(고전 12:11, 28-31; 엡 4:11).

자기 뜻을 따라 성령의 나눠 주신 것들 - 좀 더 쉽게 번역하면 ‘성령의 뜻을 따라 나누어 주시는 것들’ 이 된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의 구원 사업에 참여하신다. “성령” (행, 프뉴마 하기오스, the Holy Spirit)은 분명한 개체를 가지신 분으로서, 자존성을 가지시고 자신의 뜻에 따라 구원 사업에 협력하신다. 요한은 “증거 하는 이가 세분이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요 이 세 분은 하나이니라” (요일 5:7, 킹제임스 성경)고 말한다. 성령은 복음 사업에 있어서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 분’ 으로 소개 되고 있다. 성령은 주님께 들은 자들과 들은 사실을 확증하는 “저희와 함께” (그들에게, 킹제임스) 효과적으로 증거 하셨다.

B. 그리스도의 우리와 같은 인성(2:6~16)

5.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바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는 복증케 하심이 아니라”

장차 오는 세상 - 바울은 앞부분에서 하나님이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셨다고” (1:2)고 증거 하였다. 이것은 아들께서 인류의 대표자로서 만유의 후사가 되신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인이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 (롬 8:17)라는 말에서 더욱 분명해진다. 하나님은 구원 받을 후사들에게 언약 하신 ‘앞으로 오는 세상’ 을 천사들에게 복종하도록 하시지 않았다. 인류의 시조인 아담이 잃어버린 세상의 통치권은 ‘은혜의 언약’ 을 따라 회복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6. “오직 누가 어디 증거하여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관대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사람이 무엇이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 ‘당신이 저를 생각하시니 (기억하시니, 회상하시니) 사람이 무엇입니까?’ “what is man?”

인자가 무엇이관대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 ‘당신이 저를 주의 깊게 바라보시니(방문하시니) 사람의 아들이 무엇입니까?’ “what is the son of man?”

본 절은 시편 8장 4절에서 인용된 것이다. 본문에 언급된 ‘사람’ 과 ‘인자’ 는 메시아이시며 만물의 회복과 복종을 가져오시는 분이시다. 다음에 전개되는 내용들은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인 사람의 위치, 인류의 위치에까지 내려오셔서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것을 말한다. 사람은 본래 흙과 먼지와 같은 존재이지만 인성을 입으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화로워졌다. 본문의 내용과 같은 절을 제공하는 시편 144:3~4에서는 사람의 존재를 ‘증기’, ‘숨’ 과 같은 “헛것 같음” 을 묘사하는 데 사용하면서 사람의 보잘 것 없음과 은혜의 크기를 대조하고 있다.

7.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 씩우시며”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 그리스도는 잠깐 동안 인성으

로 천사보다 더 낮게 되셨다. 바울은 천사의 능력이 사람의 능력보다 우월함을 말한다. 천사는 큰 능력을 행사할 수 있고(시 103:20; 단 9:21; 사 37:36; 왕하 19:35), 하나님의 대사로서 심판을 선포하고 집행하기도 한다(단 4:13, 17; 시 37:7). 또한 사단을 결박하여 가둘 능력이 있다(계 20:2). 그러나 예수님은 잠시 동안 천사보다도 못한 사람의 입장에 서셨다. 자신을 위하여 신성을 사용하지 않으셨다. 광야에서 사단은 세 번씩이나 끈질기게 신성을 사용하라고 시험(마 4장) 하였으나 예수님은 단호하게 시험을 물리치셨다. 사단과 그의 추종자들은 십자가에서 신성을 사용하라는 극도의 시험을 가하였다.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마 27:40)고 조롱하였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위하여 신성을 조금도 사용하지 않았다(요 14:31).

그리스도는 사람의 운명과 완전하게 일치되었으며, 실패한 아담의 자리에 서셨다. 창조 당시의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존재로서 땅과 지으신 만물들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위양 받아 “영광과 존귀로 관 씩” 움을 받았다. 그러나 범죄로 말미암아 그 “영광과 존귀의 관” 을 상실하였다. 은혜의 언약은 그리스도가 새 아담이 되셔서 아담이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것이었다.

8.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 본 절은 시편 8장 5절을 인용한 것이다. 시편 8장에는 만물이 주의 발 아래 두실 때의 세상의 아름다움과 그 안에서 누리는 사람의 행복에 관하여 말하고 있다.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시 8:5~9)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속에는 만물이 사람(그리스도)에게 온전히 복종하게 되어 있지만 아직은 복종하는 것을 보지 못한다. 바울은 만물로 사람에게 복종하게 하는 통치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가 죽음과 고난을 당하는 것이 필요했다고 논증하고 있다.

9.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간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간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 쓰신 예수를 보니 - 킹제임스 성경에는 “그러나 우리가 죽음의 고난 때문에 천사들보다 조금 낮아지신 예수를 보니” 라고 되어 있다. 예수님은 죽음의 고난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우리와 같은 인성을 취하셨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이유는 모든 인간이 시험 아래 있기 때문에 시험 받는 인류를 도와주시고자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 (2:18)신 것이었다.

영광과 존귀로 관 쓰신 예수 - 예수님은 아담을 따라 범죄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주시고 인류가 잃어버린 존귀와 영광을 회복하셨다. 하나님께서 아들 안에서 모든 인류를 받으시고 그를 보좌 우편에 앉히신 것은, 또한 아들 안에서 모든 인류를 영광과 존귀로 관 씌우시기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을 위” 한 것이었다. 이

를 위하여 예수님도 “사람” 이 되셨고, 모든 사람의 죽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셨다.

10.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 - 예수님 때문에 만물이 존재하고 그를 통하여 만물이 존재하게 되었다. 즉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라는 말씀이다.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 -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에 사람이 들어오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오직 창조주만이 인간의 잃어버린 영광을 회복시킬 수 있는 자격이 있으셨다.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 “합당하도다” 에 해당하는 헬리어 동사형 ‘프레포’ 는 ‘두드러지다’ , ‘탁월하다’ 라는 의미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는데 있어서 당신의 공의와 자비에 가장 탁월한 방법을 선택하셨다. 단지 구주께서 죄의 책임을 지시는 것이 합당하다는 말이 아니다.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인류의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 은 하나님의 자비로운 품성과 부합되는 일이다. 그러나 그 자체보다도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시고 모든 인간과 동일한 입장을 취하시고 시험을 받으심으로 모든 인간이 도달해야 할 품성의 완전, 죄 없는 생애의 완전을 이룩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시는 방법이 탁월하고 합당하다는 것이다.

예수님은 탄생에서부터 십자가까지 가장 합당한 방법을 선택하셨다. 요한이 예수님에게 침례 베풀기를 주저할 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

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
니라” (마 3:15)고 하셨다. 이처럼 구주에게 있어서 모든 인간과 같은 입장
이 되신 것은 가장 합당한 구원의 방법이었다.

온전하게 하다 - 헬라이어 동사 ‘텔레이오오’ 는 ‘완전으로 나아가다’ , ‘도달
하다’ , ‘성숙하다’ 라는 의미가 있다. 이것은 육체적, 지적, 영적 능력이 성
숙해지는 것을 말한다. 예수님은 자라나는 매 단계마다 완전하셨다. 그렇
지만 “고난으로 온전케 하심” 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죽음의 고난이 예수
님으로 하여금 완전의 목표에 도달케 했다는 것을 말한다. 예수님은 생애
의 시험과 고난을 극복하시고 죽음까지도 정복하심으로서 완전한 분이라
는 것이 증명되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신자를 위한 것이었다.
갯세마네에서 중보자 없이 서신 경험은 장차 환난의 때에 중보자 없이 설
자들의 경험까지도 미리 맞본 것이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 많은 인간의 대리자와 보증인으로서 하나님의 형벌로
고통을 당하셔야 하였다. 그분은 공의가 의미하는 바를 깨달으셔야 하였
다. 그분은 죄인들이 중보자 없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
는지를 아셔야 하였다.” 36)

11.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
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자 - 거룩하게 하시는 자는 의롭게 하시는 자이다.
“거룩하게 하시는” (헬, 하기아존)은 현재 능동태 분사이다. 십자가에서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는 과거 분사였다면 “거룩하게 하시는” 일
은 지금도 항상 계속 진행되고 있는 일이다.

36) 부조와 선지자(Ellen G. White, Patriarchs and Prophets), p. 691.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 문자적으로는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들(이)” (헬, 호이 하기가조 메노이)이다. 현재 수동태 분사로 표현되어 있으며, ‘지금 계속해서 거룩하게 되어지는’ 의 의미이다. 거룩하게 하시는자인 예수님의 능동적이고 계속적인 사역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계속해서 거룩하게 함을 입는 자들이 있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거룩함의 시작인 사법적인 칭의가 단지 죄인 밖에서의 하나의 선언이 아니라 실제로 의롭게 하시는 사역인 것과 실제로 죄인이 의롭게 변화되는 것임을 말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다 하나에서 난 지라 - ‘한 분에게서 나왔다’ 는 말이 더 적합한 말이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다 한 분 하나님에게서 나왔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우리는 형제가 된다. 성화의 길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마 12:50). 이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하여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요 20:17)이라고 하셨다.

12.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내 형제들 - 예수님의 형제들은 앞 절의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이다. 주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형제들에게 선포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다. 또한 당신의 모든 백성 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모든 거룩하게 함을 입은 “교회” (헬, 에클레시아: 회중)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신다. 본 절은 시편 22:22에서 인용되었다. 시편 22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수난을 당하시고 구원함을 얻은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죽음의 고난을 통하여 그의 형제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은 높임을 받으셨다.

본 절의 선포는 그리스도의 지상 생애를 통해 선포되었고, 십자가로 비준되었고, 지금도 성취되어 가고 있다. “그분은 자신을 사람들과 같은 수준에 놓으시고 말씀하신다. “나는 인류의 머리에 설 것이다. 나의 겸비함을 통해 그들이 왕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게 할 것이다. 나는 내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할 것이다. 나는 내 제자들이 하기를 내가 원하듯이 그분을 신뢰할 것이다.” ” 37)

13.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불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바울은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들이 형제를 넘어 “자녀”가 되게 한다고 말한다. 여기에 자녀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는 ‘파이디아’로 ‘아이들’, ‘갓난아기’를 말한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는 아름다운 장면을 그려보라. 자녀는 가정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대상이다. 구주께서는 우리와 같은 혈육으로 오셨고, 승리의 생애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낳으셨다.

14.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매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매 - 인류의 모든 사람이 어머니의 뱃속에서 혈과 육으로 태어난다. 그러므로 구주께서도 “한 모양으로” (헬, 파라플레시오스: 동일하게, 유사하게) 인성에 참여하셨다. 과연 ‘같은 방법’ (동일한 방법)인가? 단지 유사한 방법인가? 다음의 글을 읽어보자.

37) 설교와 강연 2권(Ellen G. White, Sermons and Talks, Vol. 2), p. 192.

“주님께서는 인간의 사건을 책임지셨으며 인간이 소유할 수 있는 **동일한 조건들**을 가지시고 인간이 반드시 극복해야 하는 사단의 시험들을 이기셨다. 이렇게 하는 것이 타락한 인간이 거룩한 성품에 참여자가 되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38)

“사단은 인간의 타락을 인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높은 지위에서 끌어내릴 수 있었음에 대하여 그의 천사들과 함께 또다시 기뻐하였다. 그는 그의 천사들에게 예수께서 *타락한 인간의* 성정을 취하시면 자기가 예수를 이길 수 있게 될 것이며 그로 인해 구속의 경륜을 이루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고 말했다.” 39)

E. J. 와그너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라 했다(갈 4:4). 여자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으므로 이 세상의 어느 여자가 낳은 아이와도 똑같은 아이가 되었다. 그러나 왜 여자에게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되었는가? 왜 남자에게서 나지 않았는가? 그 이유는 간단하다. “남자에게서 낳았다면 죄 아래 있는 인류에게 충분히 접근하지 못하셨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자에게서 태어난 것은 인간의 속성이 죄를 지은 바로 그곳까지 완전히 이르기 위해서였다.” 40)

그리스도는 여자에게서 태어난 남자이셨다. 우리는 그 남자 안에서 태어난 여자인 교회가 되었다. 이것이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 (고전 11:8)다는 말이다. 이것이 교회와 남편 되시는 그리스도의 관계이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

38) 가려 뽑은 기별 1권(Allen G. White, Selected Messages, Vol. 1). p. 252.

39) 초기문집(Allen G. White, Early Writings), p. 152.

40)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A. T. Jones, The Consecrated Way to Christian Perfection), p. 35.

음이” (엡 5:22~23)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서 혈과 육을 받음으로 인성의 모든 경험에 동참하셨다. 그것은 인성으로 마귀를 이기고 제거하기 위한 것이었다. 마귀는 인성의 죄를 통해 인간을 다스린다. 그는 죄를 통해서만 “왕 노릇” (롬 5:14)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마귀의 세력을 깨려면 인성 안에서 죄를 극복하여야 하였다.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유전으로 짓된 본성을 물려 받는다. (그러나 죄를 물려받는 것이 아님에 유의하라.) 또한 타락한 성정에 쉽게 굴복하는 것이 인간의 딜레마이다. 이러한 짓된 본성과 굴복하기 쉬운 타락한 성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되신 것이다.

“예수께서는 인류가 4천 년간 죄로 말미암아 연약하여진 때에 인성을 취하셨다. 그는 아담의 모든 자녀들과 같이 유전 법칙이 끼쳐온 결과를 받으셨다.” 41)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 구주께서 혈육에 참여하시고 인류의 구성원이 되신 목적을 분명히 설명하고 있다. 그것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기 위한 것이다.

15. “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 주려 하심이니”

놓아주려 하심이니 - 연약한 인생에게 있어서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것은 없다. 위기에 처했다가 벗어날 때마다 우리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휴! 나 죽을 뻔 했어” 라는 말을 자주한다. 사단은 그 두려움을 이용해 범죄

41) 시대의 소망(Ellen G. White, Desire of Ages), p. 48.

하게 만든다.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 6:33)는 말 듣기를 두려워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고자 할 때 여러 어려움이 닥칠까 두려워한다. 공의를 사랑하고, 진리를 옹호하면 고립당하고 비난을 받을까 두려워한다. 진리를 알지만 좁은 길로 나아가기를 두려워한다. 때때로 많은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세상과 돈과 명예와 육신적 쾌락에 노예상태로 붙들려 있다는 사실조차도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 주” (구출하라, 해방하라)시기 위해 주님도 우리와 같은 인성으로 오셨다.

16.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킹제임스 성경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었다. “이는 주께서 진실로 천사들의 본성을 입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의 씨를 입으셨음이라.” 그리스도께서는 범죄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시려고 아브라함의 본성을 취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것이 분명하다.

“예수께서 우리의 본성을 취하시고 승리하신 것은 우리로 당신의 본성을 취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42)

C. 시험받는 자들을 도우시는 자비로운 대제사장(2:17~18)

17. “그러므로 저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42) 시대의 소망(Ellen G. White, *Desire of Ages*), p. 311.

하심이라”

범사에 - “모든 점에서” (in all things, KJV)라는 말로 ‘전체’, ‘전부’ 를 나타낸다. 그분의 육신과 태어난 환경은 “모든 점에서” 형제들과 같으셨다.

같이 되심 - “같이 되심” (to be made like)에 쓰인 단어는 헬라어 동사형 ‘호모이오오’ 로 ‘같이 만들다’, ‘동화시키다’, ‘닮게 하다’ 라는 뜻이 있다. 특별히 수동태로 ‘같이 지다’ 라는 뜻이 있다. “그러므로 저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셨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기 위해 아브라함의 자손과 인성의 모든 면에 있어서 꼭 같이 되셨다는 의미이다.

마땅하도다 - ‘빛을 지다’, ‘깊어야 할 의무가 있다’ 는 뜻이다. 예수님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게 위하여 “여자의 후손” (창 3:15)으로 오셔야 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반복 되었다. “네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창 24:60),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 (창 22:18)라 하셨다. √만일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씨와 단지 유사한 분(?)으로 세상에 오실 것이었다면 어떻게 구약 4,000년 동안 이 약속이 반복될 수 있었겠는가? 반복된 언약을 통해서 보더라도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되심이 마땅한 것이다.

하나님의 일에 자비롭고 충성된 대제사장 - 형제들과 같이 되신 이유에 대해서 다시 부연설명하고 있다.

“예수님께서서는 범죄하며 잘못을 범하는 인생들을 위하여 하늘 아버지께 간구하는 법과 동정하는 법을 알기 위하여 인성을 쓰실 것을 동의하셨다. 그분은 인간의 중보자가 되시기로 자원하셨고, 사람들을 두르고 있는 유혹을 파악하심으로 유혹당하는 자들의 구원자가 되시고, 또한 자비롭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기 위하여 자신을 낮추셨다.” 43)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예수가 우리와 같지 않다고, 그분은 세상에 있는 우리와 같지 않다고, 그분은 거룩하다고, 우리는 그분이 승리하신 것처럼 승리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바울은 . . .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 . . 고 기록하고 있다.” 44)

18. “(왜냐하면)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이 문장을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왜냐하면 그가 유혹(시험)을 받아 고통을 경험하신 (그것으로) 시험당하는 자들을 능히 도와주실 수 있느니라’ 가 된다.

문장에서 보듯이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이 우리가 직면하는 시험과 다른 것이었다면 그것으로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없을 것이다. 바울이 이러한 뜻을 분명히 하기 위해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 같이 시험을 받은 자” (4:15)라고 부연 설명하고 있다.

“그리스도만이 인간에게 닥치는 모든 불행과 유혹을 다 경험하셨다. 여인이 낳은 사람으로서 그분처럼 격렬한 유혹을 받고 세상의 죄와 고민의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분처럼 넓고 부드러운 동정을 가진 사람 또한 다시 없었다. 인간의 모든 경험을 맛보신 그리스도께서는 무거운 짐을 지고 유혹과 싸우는 사람들을 동정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으시고 그들과 함께 그 참 정상(情想)을 직접 경험하셨다.” 45)

“사단은 매 발걸음마다 그분을 공격하고 그분에게 가장 심한 유혹을 제

43) 증언 보감 1권(Ellen G. White, Testimony Treasures, Vol. 1), p. 303.

44) 가려 뽑은 기별 3권(Ellen G. White, Selected Messages, Vol. 3), p. 197.

45) 교육(Ellen G. White, Education), p. 78.

시해 주기 위하여 언제나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분은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궤사도 없으” (벧전 2:22)셨다. 그분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고, 그분의 완전한 거룩함에 비례하여 고통을 겪으셨다. 그러나 흑암의 왕은 그분에게서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고, 유혹에 반응한 단 하나의 사상이나 감정도 찾지 못했다.” 46)

시험 - 본문에 사용된 헬라어 ‘페이라스테이스’ (시험 받으셨다)는 동사 ‘페이라스조’ (시험하다, 유혹하다)의 부정과거 수동태분사이다. 명사는 ‘페이라스모스’ 이다. 성경에서 ‘시험’ 이라는 단어가 몇 가지로 사용되었지만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본문에 사용된 단어이다. 명사형 ‘유혹(temptation)’ , 또는 ‘시험’ 이라고 번역할 수 있다. 이것은 모든 인간이 당하는 내적인 시험과 같은 것이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과 우리가 받는 시험은 같은 시험이다.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은 우리가 당한 시험보다 더 극심한 것들이 많았다. 특히 신성을 사용하라는 유혹은 모든 인생들이 당하는 시험보다 더 큰 것이었다. 그러나 그 시험이 모든 인성이 당하는 시험을 제외시킨 것이 아니라 모든 인생이 받는 시험에 더해진 시험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받으신 시험은 모든 인생이 받는 시험 외에 신성을 사용하라는 신성의 시험이 더해진 시험이었다. 인성으로서 모든 인간이 받는 시험 또한 그의 모든 일생동안 받으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 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페이라스조)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마 4:1)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같은 인성으로 아담의 실패를 만회하실 것이었

46) 교회 증언 1권(Ellen G. White, Testimonies for the Church, Vol. 1), p. 421.

다. . . . 그리스도에게도 식욕은 첫 번째 큰 시험의 토대였다. 멸망이 시작되었던 바로 그곳에서 우리의 구속 사업이 시작되어야 한다.” 47)

“하나님의 아들은 자신을 죄인의 자리에 두시고 아담이 넘어진 곳을 건너셨으며 인류에게 임한, 혹은 임할 그 어떤 시험보다 백배나 강한 광야의 시험을 견디셨다. 예수는 모든 유혹 받는 영혼이 저항할 수 있는 동일한 방법, 즉 자신을 영감의 기록에 위탁하고 “기록되었으되” 라고 말씀하시므로 사단의 유혹을 저항하셨다.” 48)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오늘날의 어린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시험거리를 갖지 않으셨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성경 말씀은 그분이 모든 면에서 우리와 동일하게 시험을 받으셨다고 말한다.” 49)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이 시험을 물리친 방법으로 승리할 수 있다!

“우리를 시험(페이라스모스)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마 6:13; 눅 11:4)

“시험(페이라스모스)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 26:41; 막 14:38; 눅 22:40)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도 있다. 우리를 연단시켜 강하게 하며 시련과 환란에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한 시험이다. 헬라어 명사 ‘도키메’, 동사 ‘도키마조’ (눅 12:56; 고전 11:28; 고후 8:8; 13:5)가 사용된다. ‘시험하다’, ‘살피다’, ‘분별하다’, ‘증명하다’ 라는 뜻이다.

비슷한 의미의 단어로는 헬라어 명사 ‘킴나시아’, 동사 ‘킴나조’ (히

47) 시대의 소망(Ellen G. White, *Desire of Ages*), p. 117.

48) 가려 뽑은 기별 3권(Ellen G. White, *Selected Messages*, Vol. 3), p. 136.

49) 상계서, p. 134.

5:14)가 있다. ‘연단한다’ 의 뜻을 가지고 있다.

다른 하나는 시험하여 ‘미혹에 빠뜨린다’ 는 의미의 헬라어 명사 ‘아파테’, 동사 ‘아파타오’ (엡 4:22; 히 3:13)가 있다. ‘기만하다’, ‘속이다’ 라는 뜻으로 번역된다.

D. 시험과 죄의 차이점

“그는 인성을, 그것의 연약성들과 그것의 경향들과 그것의 시험거리들을 지닌 채 취하시고...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 (히 4:15)으셨다.” 50)

문제의 제안 - 본 연구의 “시험은 죄가 아니다” 라는 명제를 다룰 때 죄와 마음의 교감이 이루어진 상태에서의 져된 욕망을 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전제로 한 것이다. 또한 죄를 품어서 생긴 죄의 정욕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져된 욕망을 품으면서 “나는 죄 없다” 는 생각으로 기만당하지 않기를 바라는 바이다. 또한 시험 자체를 죄로 보고 낙심과 정죄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일 또한 없게 되기를 바란다.

1. 시험의 능력(죄의 정욕(passion), 시험에 이끌리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다. 다시 말하면 시험 자체는 죄가 아니다. 시험에 사로잡혀 굴복할 때 죄가 되는 것이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롬 7:5)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50) 상계서, p. 132.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롬 7:23)

“육체의 욕심” (epithumian sarkos, 갈 5:16, 17)

“소욕” (epithumia, 롬 1:24; 6:12; 7:7)

“육체의 마음” (phronema tes sarkos, 롬 8:6)

“죄의 권능” (dunamis tes hamartias, 고전 15:56)

이런 것들은 단지 우리로 하여금 죄 짓게 충동하는 육체의 성향에 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들은 단지 성향이며, 아직 죄는 아니다.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자연적인 불순종의 성향은 우리가 유혹에 굴복할 때 실제적인 죄가 되는 것이다.

2. 유전법칙은 단지 “정욕” (passion)에 해당되며, 시험거리가 된다. 본성의 성향은 우리를 시험으로 이끈다. 그러나 광야에서 예수께서 시험 당하신 것들을 포함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요일 2:16) 등은 유혹의 근원으로서 유혹받는 자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한 죄가 되지 않는다.

3. 시험에 사로잡히고, 굴복할 때 죄가 되는 것이다.

4. 시험 자체는 오염(pollution)이 아니다. 그러나 죄를 선택할 때 품성은 오염이 되며, 죄가 된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4:15)

* 예수님의 시험은 육신의 타고난 경향성과 외부적 시험을 모두 포함한다. 예수님이 죄 없으신 이유는 어릴 때부터 시험을 이기셨기 때문이다.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에(선택) 미쳐 버티와 끈을

먹을 것이라” (사 7:15)

“사단에 의하여 제시되고 일어나는 생각들과 감정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가장 강한 자에게로 일어난다. 만약 그들이 이것들을 마음에 품지 않고 증오함으로 거절하면 영혼은 그 죄에 감염되지 않고 그 영향력으로부터 보호받게 된다.” 51)

“가장 훌륭한 사람들조차도 사단에 의해 심겨지며 조장되는 불순한 생각들과 느낌들로 괴로움을 당한다. 하지만 만일 그러한 것들을 마음속에 품어 키우지 않고 가증한 것으로 격퇴하면, 그 영혼은 죄책으로 물들지 않으며 그들에 의해 다른 사람들이 또한 더럽혀지지 않게 된다.” 52)

“유혹은 죄가 아니다. 예수님은 거룩하고 순결하셨다. 그러나 그분은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유혹을 받으시되, 사람이 견디도록 결코 요구 받을 수 없는 힘과 능력으로 유혹을 받으셨다. 그분의 성공적인 저항을 통하여 그분은 우리에게 뚜렷한 본을 보여 주셔서 우리가 그분을 따를 수 있게 하셨다.” 53)

“어떤 사람도 강제로 범죄 하게 할 수는 없다. 그 자신의 동의를 먼저 얻어야 한다. 정욕이 이성을 지배하고 불의가 양심을 이기기 전에 심령은 범죄의 행동을 의도해야 한다.” 54)

5. 예수께서 시험받는 육신을 취하신 이유는 시험받는 자들을 도우시기 위해서이다.

51) 리뷰 앤드 헤랄드(ElLEN G. White, The Review and Herald), 1888. 3. 27.

52) 상계서

53) 교회 증언 5권(ElLEN G. White, Testimonies for the Church, Vol. 5), p. 425.

54) 상계서, p. 177.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매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일생에 매여 중 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 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저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히 2:14~18).

“사단은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주장의 허위성을 입증하시기 위해 당신의 거룩한 보좌를 떠나 인성을 취하시고 지구에 내려오신 다음 인류의 선두에 서서 인간도 사단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셨다. 그분께서는 시험 당하는 모든 사람들을 도와주시기 위해 인류의 머리가 되셔서 타락한 인성이 받을 수 있는 시험을 전부 받으셨다. 이 땅에서 그분께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올바른 표준과 일치하는 생애를 살 수 있는지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특성을 지니시고도 하나님의 의의 표준에 충실하심으로써 사단을 이기셨다. 그분께서는 우리처럼 모든 시험을 다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셨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아버지의 품성을 드러 내시기 위해 인성을 취하시기 전 사단은 전 세계를 자기 편에 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오늘날도 원수는 여전히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생명이 달린 게임을 하고 있다.” 55)

55) 원고(Ellen G. White, Manuscript), 77, 1902. 6. 7.